

# 분수-겨울\_나무로부터 봄\_나무에로-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10월 교육청]

(가)

1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

(나)

나무는 ㉢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험벗고 영하(零下) 십삼도(十三度)

영하 이십도(二十度)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기립(起立)하여, 그

려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零下)에서

영상(零上)으로 영상 오도(五度) 영상 십삼도(十三度) 지  
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 **둥근 공이 되어**

옹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33%]

1. <보기>와 관련 지어 (가)~(다)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 회의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게 된다. 이에 대해 실존주의 작가인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그의 철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지프스는 신의 미움을 사서 산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으라는 형벌을 받는다.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굴러가는 바위 때문에 시지프스는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대로 바위를 굴러 정상에 올리려는 행위를 반복한다.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① 원구: <보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회의감은 (가)의 화자가 분수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존재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통할 수 있겠군.
- ② 미영: <보기>의 시지프스가 반복하는 행위와 (가)의 솟구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분수의 모습은 유사할 수 있겠군.
- ③ 철희: <보기>의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과 (나)의 나무가 처한 상황인 겨울은 각각에게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겠군.
- ④ 유나: <보기>에서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카뮈가 말하려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는 (나)에 드러난 나무의 삶의 자세일 수 있겠군.
- ⑤ 태완: <보기>의 시지프스가 정상에 올려 놓아야 할 바위는 (다)의 떨어져도 다시 튼 공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8%]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분수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은 좌절을 딛고 올라가는 분수의 비극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나무가 가진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나무가 이루고자 한 것이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 ⑤ ㉤을 통해 원만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